



## 美 연준, 3차 양적완화 가능성 시사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7월12일 공개된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의사록에 따르면 경기둔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3차 양적완화 조치 가능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.

- FOMC는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, 2차 양적완화(QE2) 조치 종료 등 당초의 결정들을 변경 없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.
  - FOMC는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직후 총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1차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하였고, 2010년 11월에는 2011년 6월 말까지 국채매입을 통해 6천 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2차 양적완화 조치를 결정함.
- 그러나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FOMC 위원들이 느린 경제회복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실업률 하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.
- 반면, 일부 소수 FOMC 위원들이 물가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3차 양적완화 조치는 고려할 수 없으며, 기존의 통화정책도 서둘러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,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은 물가상승은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남.
  - 소수 위원들은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져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.
  - 이에 반해 다수 위원들은 현재의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고, 중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봄.

■ 한편, 7월 13일 미 연준 의장이 경기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임.

- 미 연준은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,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를 나타낼 경우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함.

- 최근의 경기둔화 양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, 디플레이션 위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힘.
- 미 연준은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으나, 하반기 성장세 반등에 대한 확신은 종전보다 약화되었다고 밝힘으로써 추가 양적완화 조치 시행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임.
- 경기부양 방법으로 국채 직접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또한, 미 연준은 저금리 기조 시한을 밝힘으로써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요인을 제거할 것으로 보임.

(Wall Street Journal 7/12, 7/13)